

축복 받도록, 신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Pr. 리처드 영 목사

리처드...나... 바람피울까...생각하고 있어...

저는 당연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한 친구가 이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제게 털어놓았을 때입니다.

그 애길 듣는 내내, 그 친구는 계속해서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리처드, 너도 알다시피, 내 결혼 생활이 오랫동안 평탄하지 않았잖아. 내 아내 알지? 진짜 요구사항 많고 나를 이해하지 못해. 부부 관계도 예전만큼 많이 없어. 우리 애들을 사랑하고 이 교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도 좋은데, 부부 사이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

그리고 최근에 한 여자분이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사실, 그녀는 얼마 전 설교 끝나고, 나에게 찾아와서 좋은 말을 정말 많이 해주셨고, 번호를 교환했어. 그녀는 나가서 커피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 나는 정말로 그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행동은 평소 제 친구답지 않았지만, 유혹에 빠져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가 신앙적으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과 신학에 관해 함께 몇 시간 동안 아침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서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로서, 저는 그에게 즉시 이 관계를 끊어야 하고, 그 여자의 개인 연락처를 삭제하고 윗사람들과, 아내와 상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 내내 그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어려워했고 행하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한 갈등과, 그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답해야 할 두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2) “유혹을 저항하고 죄를 피하면서,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답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고,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에서 어떤 권력자의 종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혼자지만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으며, 유혹이 와도 요셉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유혹과 부당한 고통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관련된 세 가지 진리를 함께 볼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1. 여호와께서는 그가 축복하시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1-6a절)

저의 첫 번째 요점은 여호와께서는 그가 축복하시는 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축복은 당신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실하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1-3절:

- 1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 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 3 그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이야기의 처음 나오는 두 인물은 요셉과 보디발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죽을뻔했다가 구덩이에 버려졌습니다. 그의 형 유다가 그를 상인들에게 파는 “더 나은” 계획을 제안했고, 그 결과 그는 애굽에 가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호위 대장”입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통치자의 일반적인 호칭이며, 보디발의 계급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집행자들의 대장”입니다. 정말 높은 직책입니다!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는 사형 집행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보통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목사라고 하면 대화의 50%는 그냥 끝내는데 사형 집행자가 이긴 것 같네요!

보디발은 죄수의 안전과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힘 있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죽음과 바로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가혹한 형벌에 대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디발이 상인들에게서 요셉을 사서 그의 집에 두었다고 말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요셉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느니라” 이 문구는 이 첫 세 절에서 두 번 나오고 마지막 세 절(21-23절)에서 두 번 더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문구는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요셉의 임박한 모든 성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사실, **ESV**가 “**LORD** - 주 ”로 번역하는 신의 이름 **YHWH**(“야훼”)는 창세기 37장-50장에서 여덟 번 나오는데, 그중 일곱 번이 창세기 39장에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의 저자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요셉의 상황이 안 좋아졌던 상황에서는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떠난 후 가족 사업을 이어받길 바라는 그의 소망을 나타내기 위해 그에게 화려한 옷을 줍니다. (그의 형제들한테는 큰 고통이었지만요!)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본문은 “3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나는 오카나간에서 일주일 간의 캠핑카 여행을 마치고 방금 돌아왔습니다. 나는 대형 캠핑카, 보트, 대형 트럭과 사업체를 소유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물질적 소유는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지만 돈은 많지만, 도덕성이 의심된다거나 함께 할만한 사람들이 못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셉의 “성공”은 그가 소유한 재산을 보고 말함이 아닙니다. 그는 결국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며 요셉의 주인에게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율링던을 모교회라고 여기시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 이민자였습니다. 그는 이집트 언어나 그 생활 방식을 몰랐을 것입니다. 상업, 산업, 예술, 의학에 관한 많은 부분이 그에겐 모두 새로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캐나다에 왔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열심히 일하는 많은 이민자들처럼, 언어, 문화, 시스템 및 일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요. 메이플 시럽, 푸틴, 캐넥스를 좋아해야 하거나 적어도 좋아하는 척해야 합니다

네, 요셉은 히브리인이었지만 성공하려면 이집트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이집트인처럼 걷는 법도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능력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와 사업에 있어서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되기 위해 동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요점은 아니긴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자신의 수고를 통해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통함은 궁극적으로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절 중반으로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4~6절로 가보겠습니다.

4-6절

4 요셉이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자기 집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섹션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보고 싶은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호감을 얻은 것에 관한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게 본인에게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동료 종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다소 불안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누군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에게서 발견한 것은 그가 하나님 덕분에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보디발도 요셉이 자기 집에 있으므로 복을 받았습니. 요셉은 노예였지만 요셉의 삶에 대한 축복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보디발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무엇을 하든 흥련을 쳤기 때문에 자신의 팀에 합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성경적 약속은 실제로 창세기 **12장 1-3절**에서 발견됩니다. **[아브람(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변경됨)은 요셉의 증조부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2:1-3**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제게는 주님의 축복을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가족, 자격 상관없이, 심지어 천부적인 재능이 없는데도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도 아니고요, 지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최근 미국 언론의 큰 유명인 중 한 명에게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아론과 같은 사람들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큰 장소로 데려가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따르고 있고 그의 미래에 대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함을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구된 자를 하나님을 떠나있을 때 보다 훨씬 더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5-6절에 “

5여호와와 그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지라

6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디발의 가정이 크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내를 두고, 집을 떠나 다른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는 아내 외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재는 아니지만 스테이크보다 아내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 Vinh 목사님도요)

그러나 우리 남편들은 수년 동안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요셉이나 보디발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이집트에 도착했고, 간단한 계산으로 우리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대략 **11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충실한 종이었으며 자신의 임무를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의무를 다하고 유혹을 만났을 때에도 신실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불러내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각자의 삶과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요셉이 이집트에서 할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험과 성장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 여호와께서는 그가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어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6b-20절**)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축복하시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죄에 대한 승리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혹을 멀리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치른 대가는 그의 자유였습니다.

6-10절:

6b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7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10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다음 네 절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요셉이 시험당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 본문에서는 요셉이 잘생겼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때 그의 나이는 **27~28**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보디발보다 어리지만, 보디발의 아내보다 얼마나 어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외모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게도 했지만 원치 않는 관심도 끌었습니다.

7절 - 요셉의 외모와는 별개로 보디발 부인과 왜 그녀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요셉을 쫓아다녔는가에 대한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녀가 성적으로 좌절감을 느꼈는가? 보디발이 자녀를 낳지 못하니 어머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걸까요? 아니면 요셉의 체격과 근면성과 재능과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을 보고 그가 좋은 혈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 그녀는 남편에게 무언가를 위해 복수하려고 했던 걸까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은 그녀의 강제적인 어떤 목적성이 있음이 강조되어 있고 히브리어 문자대로는 “함께 누워서 관계를 하자!”라고 되었습니다!

한 주석가는 보디발 부인의 남자 종을 대한 방식이, 보디발이나(또는 당시의 다른 많은 주인들이) 여종을 원할 때마다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던 것처럼 요셉을 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럴듯하며 요셉이 계속해서 그녀의 접근을 거부했을 때 그녀의 반응이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모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그녀에게 관심이 없고 그녀의 노예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사람들이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것이 외도나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남편들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요, 침실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면 먼저 차 한 잔과 대화로 해보세요! 결혼 생활은 힘들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혹은 실재하며 미혼이든 기혼이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유혹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요셉을 유혹하는 자(보디발 부인)에게서 보호하지 않으셨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여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8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본문에 요셉이 세 가지 이유로 보디발 부인의 접근을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1. 그는 그의 주인, 보디발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까(39:8).
2. 그는 결혼의 신성함을 존중했습니다(39:9).
3. 그는 간음이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믿었습니다(39:9).

요셉의 가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서 성적인 죄가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보고, 유혹이 왔을 때 요셉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 아브라함과 사라(이복형제들과 남편/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 죄를 지었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창 16장).
-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 누이일 뿐이라고 했고 (그의 아내는 아님) 아비멜렉이 거의 동침할 뻔했습니다 (창 20장).
- 요셉의 누이이자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했습니다(창 30장).
- 그의 형 르우벤은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하였고(창 35장), 그 결과 창 49장에서 장자권(야곱의 장자)을 뺏겼습니다.
- 그리고 요셉이 없을 때, 그의 형 유다는 창녀를 청하여 동침했는데, 알고 보니 그의 며느리 다말이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창 38장).

말할 필요도 없이, 요셉의 가족에게는 성적인 죄가 있었고 그는 보디발 부인과 동침하는 것의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어떤 성적인 죄가 있나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가족 혈통을 우리 뇌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고통에 대처하는 법을 처음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탓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해지고 죄를 이기고 싶다면, 출신 가족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are Ministries에서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Pure Desire 코스, 프리덤 세션 및 성경적 상담을 제공하여 상처에 깊이 들어가,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공유하며, 치료를 합니다. [예배 후에 내려오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시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저는 여기서 이 표현이 좋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 옆에 눕거나 " 또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다" 이는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는 잦고 끈질긴 접근에 불쾌감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녀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피하는 것과 자제는 둘 다 유혹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행동을 (대부분) 통제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몸과 행동까지 통제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11-12절:

11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12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모든 면에서 보면 요셉은 계속해서 의롭게 행하려 하였고 자신의 맡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 부인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11-12절에서 요셉에 대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아무도 없을 때 집에 들어가서 방심한 상태였지만, 그 현장에서 도망함으로써 옳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선의 선택이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에, 그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한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여 죄로 향하게 하나,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확실함으로 우리가 요셉처럼 죄에서 피하게 도우십니다.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저는 성 중독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힘들지만 나쁜 "친구들", 술, 마약, 하루 종일 인터넷 하기, TV, 룸메이트, 아파트는 물론 이웃으로부터 피했습니다. 다른 길로 집에 왔고, 주말에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큰 비난도 받았습니다. 저는 탄탄한 교회 공동체와 효과적인 치료 계획이 있었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부인에게서 도망칠 때 피하는 계획을 잘 활용했습니다!

음란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요셉처럼 피하려 해야 합니다. 유혹이 오면, 있는 방에서 나가세요.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자신과 아내, 자녀에게 한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인용하십시오. 성령님께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혼자서 유혹과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절박한 때에는 현명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에 노출되는지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13-18절

13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4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15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16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17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18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 6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은 “옷”이라는 단어가 네 번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 27장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준 채색옷으로 인해, 요셉과 그의 형들 사이에 걸림돌이 되었었습니다. 그 옷은 벗겨졌고 결국 요셉을 해치려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요셉의 죽음을 “확증”하기 위해 야곱에게 보였습니다. 요셉은 옷을 잃어버렸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 39장에 다른 옷 벗겨짐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요셉을 해치고 싶어 하는 보디발 부인의 통제하에 있게 됩니다. 이 옷은 결국 보디발에게 보이고, 보디발은 주인/종으로서의 관계를 끝내고, 결국 요셉을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그 옷을 잃어버렸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보디발 부인(요셉을 강간했다고 비난하는 것 외에도)이 남편에 대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14절과 17절에서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보디발 입니다. 그녀는 집안의 다른 남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으며 애초에 요셉을 집에 데려온 남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보디발에 대한 비난이 전반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하며, 이것이 그녀가 요셉을 쫓아다니 이유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내/남편분들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다른 이성에게 배우자 흉을 보는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불만이 있으면 직접 이야기하거나 전문적인 결혼 상담을 받으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19-20절

19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는 부분은 보디발과 요셉, 그리고 다른 집안 식구들 중 어느 누구도 요셉에 대한 보디발 부인의 주장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녀는 보디발의 종을 탓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위해서 그랬으면서도요.

본문에는 보디발의 분노가 “불붙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질문: 그는 아내를 폭행한 요셉에게 화가 났었을까요? 물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질문: 그는, 큰 지위를 가진 남자로서, 그런 아내의 죄가 공개된 것에 대해 화가 났을까요?

질문: 그는 이제 요셉을 처벌하고 그의 집안이 그로 인해 더 이상 축복을 받지 못하여 재정적 손실을 입을 것

이기에 화가 났었을까요?

화가 났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집행관이라는 사실 기억나시죠) 이는 그가 아내의 주장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일 믿었다면, 요셉은 죽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 - 게다가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곳은 중범죄자가 아닌 '정치범'이 수감된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갇혔고 또다시 갇혔습니다. 두 번 다 무죄입니다!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는 좋은 아들이자 열심히 일하고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보디발에게 매우 충성스러웠으며 그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으로, 그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뭘 더 해야 했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그는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에게는 가까운 기독교인 친구가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외국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죄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범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 친구의 알리바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계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앤드류는 이 끔찍하고 긴 고통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때로는 부당한 고통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에 대해, 여호와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마지막 요점입니다.

3. 여호와께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21-23절)

오늘 아침 세 번째 요점은 여호와께서 부당하게 고난받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신임을 받았고 보디발의 신임도 받았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을 미리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 그는 바로와 그를 죽이려던 그 형제들에게도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신뢰하시고 그를 사용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구절로 들어가겠습니다.

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다시 한번, 요셉을 해치려는 사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생명을 살려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요셉을 축복하시고 **21절**은 여호와께서 심지어 감옥에서도 요셉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입니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절대 요셉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나요? 특히 질병, 가족의 죽음, 해고와 같은 나쁜 소식을 접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혹은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신앙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그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Chesed**"이며 그 의미는 너무 깊어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번역은 “충성스러운 사랑”, “한결같은 사랑” 또는 “깊은 애정”입니다. 이 단어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내 아내의 이름은 스페인어 **J**를 사용한 "**Jesed**"입니다. 히브리어 "**chet**" 대신입니다. 그 단어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지난 **10년** 동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신실하고 깊은 사랑은 정말 축복입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의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을 보이시며, 창세기 **12장**에서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그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감옥에서 고통받는 요셉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소개되는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나라를 위해 요셉을 감옥에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민족의 생존뿐 아니라 번영하고 약속의 땅으로의 구원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고,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받고, 보디발에 의해 감옥에 갇히고(처형 대신) 바로의 죄수들만 가두는 특별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 어느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22-23절:

- 22**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 23**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에게 호의를 얻었을 때 **4-6절**과 평행을 이루는 구절을 봅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그리고 회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간수에게 은혜를 얻게 하신 것이 여호와였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신 것도 여호와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연애에서? 학교에서? 사업에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믿게 되고, 일이 잘되면 모든 공로를 내가 갖고,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는 요셉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자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 성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요셉의 축복과 유혹을 이겨낸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계획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그분은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신실한 사람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요셉처럼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요셉처럼 예수님도 붙잡혀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그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완전한 뜻을 신뢰하셨고

신실하심을 발견했습니다. 2000년 전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피를 흘리기 위해 완전한 믿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 없이는 우리의 죄값을 갚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즉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며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고난과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혹을 피합니다!

바람을 피우고 싶은 유혹에 빠진 그 친구도 피하길 바랍니다. 그가 요셉처럼 하여 그 여자를 다시는 보지 않기 위해 문밖으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밝혀졌고 그의 아내는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재능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설교자였던 저의 “친한 ” 친구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즉시 해고되고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었고 아이들도 잃었습니다. 그는 모든 경력과 자신의 소명을 잃었습니다. 석사 학위를 취득한 아주 똑똑한 남자는 패스트푸드 업계와 중고차 업계에서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 큰 미래가 있고 성실했던 남자가,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유혹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한 그 신실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4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25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24-25)